



道政의 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 용 응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지방분권시책의 추진으로 국가적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충청남도의 지역발전연구를 전담하는 충남발전연구원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저의 조상이 대대로 살아오셨고 저 역시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미려하나마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제가 과연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중책을 얼마나 훌륭하게 수행하여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사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의 지구화와 지식·정보사회의 대두라는 문명사적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변화의 폭과 범위에 있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대한 흐름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조류의 선두에 서서 변화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국가와 사회는 발전과 번영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뒤쳐진 나라와 사회는 풍요로운 역사적 자산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쇠락의 운명을 견게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부적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의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의 선두가 될 수 있도록 상생의 협력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분권화와 균형발전, 동북아중심 국가의 건설 등 새로운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Heart of Korea) 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道政의 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道와 市·郡政을 지원하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의 발전방안과 역할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개선택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만, 우선 몇 가지 소신과 바램을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발전연구원은 지역발전 비전의 실현과 도정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



하고, 정책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는 Think Tank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과 함께 도정의 경영혁신과 지역경제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문의 연구에 치중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포럼의 중추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권형 사회에서는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관련 집단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민주화와 지방분권과 더불어 우리나라에는 國政 및 道政과제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중앙 및 지역내 이해당사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기관은 이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은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해 민~관~학~연을 연결하는 지식 네트워크 매니저(network manager)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충남발전연구원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道政의 혁신과 지역발전의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實事求是形 研究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구를 수행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구의 결과가 도정혁신과 효율화, 지역주민의 복지에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成果志向의이고 實事求是的인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과제 발굴부터 연구수행 및 평가에 있어 새로운 인식과 혁신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은 혁신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내부역량강화를 위한 사회적 학습을 선도하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급변하는 사회경제환경 속에서 기존의 방식만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1세기 지역혁신발전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역량의 선택과 집중, 지역사회 전문조직과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연구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분야별 연구에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연구수행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과업은 원장 개인이나 연구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도청과 도의회 관계자, 도내 기초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내 대학, 경제·산업단체,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의 지원과 지도편달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자기혁신과 미래변화를 선도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중심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